

## I. 서론

감정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감정이라는 개념이 그리 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과, 영어 단어 ‘emotion’가 이런 부류의 심적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준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주 최근이라는 사실이다(최희봉 2006:207-; de Sousa 2018; Dixon 2003).<sup>1)</sup> 감정의 본질을 느낌(feeling)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지 내용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20세기 중반 이후 벌어진 논쟁은 인지주의 쪽으로 수렴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뚜렷이 드러나는 점은 감정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단일한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인지 내용과 주관적 느낌뿐 아니라 표정, 신체상의 변화, 행동적 경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체라는 것이다. 감정들이 하도 다양하고 특성이 달라서 하나의 자연종 또는 학문종으로 묶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sup>2)</sup>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목록이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로 통일되리라는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감정은 마치 여러 재료가 섞여 만들어진, 본래의 자기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반액체 같은 것이어서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일부는 남지만, 나머지는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감정에 관한 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수궁하면서도 그 설명이 모든 감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디슨(Thomas Dixon)은 ‘emotion’이 마음의 울렁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어권 용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상의 변화가 특히 1800-1850년 사이에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희망이나 두려움,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현상들을 다룰 때 그 이전 학자들은 영혼의 ‘passions’ 또는 ‘affections’ 또는 ‘sentiments’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런 용어들은 폐기되고 한결같이 ‘emotion’를 채택하게 된 연유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디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리학의 세속화 과정을 통해서 ‘emotion’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탄생되고 감정을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K. 86). 그 이전 시기에 ‘영혼의 passion정념과 affection애정’이란 개념은 기독교의 특징적 개념 및 범주망에서 이루어진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정’의 범주는 기독교 사상과는 이질적인 세속적 세계관에 의해, 세속적

1) 시대마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감정의 주된 특성으로 지적하는 내용도 다르다. (학자가 용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그 용어가 지시체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글들은 자주 용어 정리에서 시작한다. 몇 개의 선택지를 고려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무난한 용어로 ‘감정’을 선택했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2) Griffiths, Paul E. (2004). Is Emotion a Natural Kind? in Solomon, Robert C. (Ed.) (2004).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 on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세계관 안에서, 세속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형성, 수용되어 오늘날 마음에 관한 ‘참된 과학’의 자리를 차지한 과학적 심리학의 후광을 힘입어 이 분야의 유일한 공식 개념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sup>3)</sup>

딕슨은 이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심리학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정념(passion)과 애정(affection)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이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근대 이후 영어 사용권 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 변화되어 왔는지를 추적한다. 딕슨은 David Hume, Thomas Brown, Thomas Chalmers, Alexander Bain, Herbert Spencer, Charles Darwin, William James와 그리고 그 외에도 감정에 관해 논한 많은 영미권 학자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감정론을 이들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입장과 학문 방법론에 관한 견해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emotions’가 passion과 affections, sentiments의 (이 용어들 각각의 외연과 내포는 얼마나 다양한가)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책이 지적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순전히 생리학적이고 비인지적이며 비자발적인 passions와 emotions의 이론들을 만들어 낸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동 심리학(affective psychologies)을 만들 때 전통적인 (자주 도덕적이고 신학 적 내용과 연관을 맺고 있는) 범주들과 개념들, 가정들, 방법들에서 떠난 사상가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가들로는 버틀러, 브라운, 차머스, 베인, 스펜서, 제임스가 있었다.(K. 3127)<sup>4)</sup>

본 논문은 딕슨의 테제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감정’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창안과 선택, 사용 이면에는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형이상학이나 인간론, 방법론, 혹은 세계관이 있음을 충분히 시사받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기독교 감정론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경우를 분석하여 그의 기독교적 인간론, 세계관이 그의 감정론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이전 철학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던 감정론을 받아들여 수정, 발전시켰다. 스토아 학파는 윤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감정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감정론을 펼쳤다. 감정에 관해 철학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거스틴은 이들 작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했다.

어거스틴의 사상의 변화 과정은 그의 『고백록』에서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수사학자로 훈련을 받은 그였지만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치열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철학자 신학자가 되었는데, 처음에 그는 답을 마니교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마니교의 한계를 분명하게 확인한 그는

3) Dixon, Thomas, *From Passions to Emotions: The Creation of a Secular Psychological Categ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K. 3069 “19세기에 일어난 것처럼 ‘emotion’이라는 심리학적 범주가 넓게 사용되게 된 것은 그 당시 가장 대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심리학의 저작들이 실증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전통 안에서 형성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허치슨, 왓츠, 웨슬리, 에드워즈와 리드의 심리학에서 passion은, 욕구와 의지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현상들의 전체 집합의 한 부분에 불과했었다. 이성적 영혼의 자발적인 움직임인 affection이 전통적인 그림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었다.” (K. 3208) 이 책의 Kindle Version을 이용했고, 인용에는 킨들 번호를 사용한다.

4) 딕슨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신념을 따라 전통적인 범주들을 다루는 학자들과 세속적인 신념을 따라 emotion 또는 이와 유사한 범주들을 다루는 학자들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양쪽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 사이의 다양한 결합 방식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딕슨은 확인한다.

점차 기독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토아 학파나 플라톤 철학의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그의 감정론도 이들 철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렇지만 그의 감정론은 후기에 갈수록 이전 철학자들의 감정론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기독교인이 된 그는 기독교적 교리를 따라 자기의 감정론을 형성해 나간다.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과 어거스틴의 감정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평가된다. 근본적으로 스토아의 입장에 머물렀다는 해석이 있고, 스토아의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자기 나름의 감정론으로 변화시켰다는 해석이 있다. 여기에 더해 스토아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밝힌 대로 모든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려는 그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두 번째 입장을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아들였던 이전 철학자들의 감정론을 그의 기독교 사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어거스틴 이전 철학의 감정론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그 후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 이전 철학자들의 감정론을 비판하고 수정해 나갔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 II.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

『신국론』 9권에서 어거스틴은 감정에 관한 이전 철학자들의 견해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다. 먼저 플라톤 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소요학파)는 감정 자체는 비합리적이지만 감정이 이성에게 복종하고 지성의 지도를 받는 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혜자도 감정을 경험한다고 본다. 이와 대조적인 입장이 스토아 학파인데 여기에 속하는 철학자들은 유일하게 선한 것은 덕이라고 보고, 일체의 감정은 선이 아니며 이성의 덕행을 방해한다고 본다(『신국론』, 9.4.1). 어거스틴의 감정론은 이 두 입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감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학파의 감정론을 정리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국가가 옳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수호자, 일반 시민들이 각각 자기의 것(덕)을 잘 실현할 뿐 아니라 다른 계급의 것을 넘보지 않는 상태, 즉 올바른 상태를 이루어야 함을 논증한 후, 이를 사람 개인에게 적용해서 인간의 영혼이 이성적인 부분, 걱정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논증한다. 사람의 영혼에는 배우고 헤아리는 기능 외에도 발끈하는 기능, 욕구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혼의 부분들을 구분할 때 “동일한 것이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상반된 것을 동시에 행하거나 겪을 수 없을 것”라는 원리를 이용한다(436b-c). 하나의 혼이 동일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반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 같은 대상을 놓고 상반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두 추동력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혼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면서도 어떤 이유를 고려하여 물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우 혼 안에 마시도록 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마시는 것을 막는 다른 것이 있다고 여겨야

한다. 『국가』의 화자 소크라테스는 전자를 헤아림, 이성적인 것이라 부르고,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어떤 처지(pathemata, passions)라고<sup>5)</sup> 부른다.

이 부분 외에 소크라테스는 혼의 제3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앞의 헤아림은 부분과는 구별되는,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상태에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기술한다. 걱정(기개, thymos)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구분해 내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아글라이온의 아들 레온티오스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사형 집행자 옆에 누워 있는 시체들을 지나가면서 레온티오스는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기면서, 동시에 그런 욕구를 언짢아하고 외면하려고 했다고 한다. 얼마 동안 이 두 마음이 서로 싸다가 그 장면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자신을 압도하자 레온티오스는 시체 쪽으로 내달으면서 “보려무나, 너희들 고약한 것들이! 그래, 저 좋은 구경거리를 실컷들 보려무나” 하고 꾸짖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바로 전에 소크라테스는 혼의 흥분하는 이 부분이 쾌락들과 한편이고 비이성적이며 욕구적인 부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레온티오스의 이야기에서는 이 걱정이 헤아림의 편에 서 있음을 관찰한다. 어떤 사람의 욕구가 헤아림을 거역하도록 강요할 때 걱정은 지금처럼 분개하며 욕구를 꾸짖는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영혼을 이처럼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논구하는 것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서도 합리적인 삶을 위해서는 혼의 어떤 부분이 지배권을 쥐어야 하는지를 논증하기 위해서이다. 중요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지배, 조절해 줌으로써 전체 삶이 올바르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이 세 구분에서 플라톤이 ‘기개’(걱정)이라고 부른 부분이 대략 감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6)</sup> 플라톤은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 있는 기능을 혼의 세 부분 중 이성에게 돌렸고, 기개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욕구는 그 자체로는 이성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상관이 없지만, 플라톤이 기개나 욕구 자체를 악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이 점은 플라톤이 인간을 기개와 욕정이라는 말이 끄는 마차를 이성이라는 마부가 어거하는 것과 비교하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국가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통치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통치자의 지도를 기꺼이 따르는 수호자와 일반 생산자들이 꼭 필요하듯이 한 사람의 영혼이 자기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기개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절제하는 욕구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욕구들, 감각들, 감성들, 정열들)이 반드시 이성의 따라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김요한, 2015, 227) 덕을 논할 때 그는 감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였다. 개인의 품성의 덕들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거나 반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 감정이 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한다.

어거스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이다. 그가 여러 스토아 학파

5) 영어의 ‘passion’은 당하다, 굴복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pati의 명사형 passio에서 기원한다.

(<https://www.dictionary.com/browse/passion>)

6) 학자에 따라 욕구를 감정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플라톤의 혼의 세 번째 부분 욕정이 감정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철학자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들의 감정론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키케로를 중심으로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을 정리하기로 하자.)

누스바움에 따르면 철학은 거짓 신념에 의해서 생긴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생각은 그리스의 3대 철학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주의, 스토아 철학에 공통적이었다(Nussbaum, 1994: 13). 키케로도 철학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철학이야말로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다. 우리는 이 도움을 육체의 무질서의 경우에서처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힘껏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TD 3.3) 8)

스토아 학자들이 영혼의 질병이라고 본 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영혼의 흔들림인 감정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보았다(TD 3.4.).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질병에 걸렸을 때와는 달리 어떤 운동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TS 3.5.). 이성이야말로 자연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도록 힘을 부여받은 것인데, 마음이 감정에 휩싸여 요동할 경우 이성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마음은 평정심과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키케로는 영혼의 이런 상태를 광기, 질병, 자신을 잃음 등으로 표현한다.

영혼이 혼란에 빠져 요동하면 일관성을 잃고 그래서 이성의 올바른 판단을 따르지 못하고 그 결과 사람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영혼은 왜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가? 즉 사람이 이런 감정에 빠지는 이유를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영혼의 질병인 감정은 잘못된 가치 판단, 즉 속견에 빠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유일하게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유일하게 덕이었다. 이 덕은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데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데 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건강과 어느 정도의 부와 같은 적당한 자연적인 조건들도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덕은 그 덕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이런 외적 조건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9)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된 가치가 없지만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속견에 자주 빠진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건강은 덕이나 참된 행복과는 상관이 없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도 아닌데,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리면 마치 큰 악을 만난 것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그 결과 마음이 동요되고 이성의 지도를 따라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 선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런 좋고 나쁜 감정은 지금 내 앞에 현존하는 대상을 향한 것인 수도 있고 앞으로 닥칠 것이라고

7)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19살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으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겼고 그 결과 속세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백록』, 3.4.7.).

8) Cicero, Marcus Tullius (2005), *Cicero's Tusculan Disputations*. 앞으로는 TD로 약칭.

9) 스토아 학파는 참된 선의 한계를 나의 능력의 한계와 일치시켰다. 내가 힘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따라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덕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뿐이다. 덕이야말로 내가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하는 선이고, 덕 이외의 것,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 즉 건강이나 재산,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몸의 정상적인 기능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자체 선한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eudaimonia)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Nussbaum, 359).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삶의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극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상되는 대상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무엇이 지금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풀어 오름인 쾌락, 반대로 나쁜 것처럼 보이는 무엇이 지금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영혼의 비이성적인 위축인 슬픔, 좋은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견될 때 일어나는 비이성적인 욕구인 욕망, 반대로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될 때 일어나는 두려움이다(TD 3.6.)<sup>10)</sup> 이 네 가지 상위 범주 아래에 다양한 감정들이 분류되어 배치될 수 있다(TD 3.7).

감정이 영혼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대상이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추구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가치가 크게 보일수록 영혼의 동요의 강도는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 처음에 제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방치할 때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감정이 영혼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크뤼시포스는 감정의 이런 성질을 달리기예 비유한다. 걸을 때는 내가 나의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지만 달릴 때는 방향을 바꾸든지 멈추든지 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창우, 114).

어떤 외적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 덕이 참된 행복의 조건이라고 본 스토아 학파는 영혼의 동요인 감정도 일종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때에만 이성에 의해서, 즉 철학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Nussbaum, 366). 만일 감정이 인지적 영역을 넘어가는 현상이라면 감정은 영혼의 지적 능력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게 될 것이다.<sup>11)</sup> 예컨대 감정이 몸의 변화라면, 또는 마음의 어떤 느낌이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자는 이런 다양한 감정에 시달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감정에 휩쓸리는 일이 없다. 그는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하며, 모든 진리를 알고 있고, 따라서 감정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덕을 유지하며 행복의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스토아 학자들들 중 아무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란 지난하다는 점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자는 아무 감정도 없는 무정념(apatheia)의 상태에 있는가? 모든 스토아 철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현자는 아무 감정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eupatheia)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행복한 상태에 있으므로 영혼의 합리적인 부풀어 오름인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나쁜 일은 여전히 피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함을 유지하고, 좋은 것을 욕구하고 추구하는 의지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덕에 도달해 있고 그 어떤 외적인 환경도 이 덕을 빼앗을 수 없으므로 현자는 슬픔을 느끼는 일은 없다고 한다.

### III.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변혁

10)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 중에서는 감정을 심리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이 학파의 철학자들은 모두 감정의 인지적 요소를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이창우 2012:99; 오유석 2017:78; Nussbaum, 1994: 359-).

11) 감정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가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판단, 또는 추론 과정이 어떤 전제들이 관여하는지, 그 추론 형식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이창우(2012)를 참고하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지만 그 소망의 성취는 오래 걸렸다. 그동안 어거스틴은 수사학자의 훈련을 받아 문법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위해 로마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수사학 교수가 된다. 그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부터 9년간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지만 마니교의 심각한 오류를 깨닫고 서서히 멀리한다. 19살 때 독학으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세속적인 성공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sup>12)</sup> 처음에는 기독교의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플라톤 철학의 도움을 받아 이를 극복하고<sup>13)</sup> 결국 기독교 신자가 되어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는데(『고백록』 9.6.14.) 그때가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386년이었다. 그 후 그는 성경 연구에 몰두했고, 391년의 히포의 사제가 된 후 396년에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 43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역한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요, 그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신국론』 11.4.1; 『고백록』 6.5.8) 믿고 힘을 기울여 성경을 배우고 따른 어거스틴은 이전 철학자들의 감정론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이 장에서는 어거스틴이 앞의 철학자들의 감정론을 그가 신봉하기 시작한 기독교 교리에 따라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살펴보자.

### 악의 기원

앞에서 지적한 대로 플라톤은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기개와 욕정이 이성애 원리에 반한다면 비합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sup>14)</sup>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덕을 소유한 현자는 이성을 통해 참된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덕이 아닌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오판하는 속견에 빠지지 않으므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렇게 두 입장 모두 감정을 합리적인 삶의 방해꾼으로 평가했다. 이성을 따라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살려고 할 때 감정은 덕스럽지 못한 삶으로 이끄는 원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어거스틴은 감정을 인간에게 꼭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고 앞의 두 철학 학파처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악의 원인을 혼의 기능의 한 부분으로 돌리는 것은 종교에는 하나님에게 악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악의 기원 문제는 어거스틴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청년 시절 마니교에 심취해서 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선과 악을 이해했던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가르침이 아주 영터리임을 발견한 후 마니교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12)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도 독학했는데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는 “교양학문”이라 불리는 것에 속하는 책들 중 자기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스스로 읽고 이해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음악, 산술에 관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백록』 4.16.30.

13)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책에서 이들이 다양한 근거를 들어 요한복음 1:1-5에 나오는 말씀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이르는 데 도움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받아 나온 것과 비교한다. 이스라엘이 후에 그것을 이용하여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였지만 자기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한껏 마음을 높이는 철학자들의 교만을 말한다(『고백록』 7.9.13, 15).

14)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은, 플라톤 학파가 지상적 육체들이 악의 본성이나 되는 것처럼 혐오하는 마니교들만큼 정신나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혼이 육체에 의해 휘둘리고 탐욕이나 슬픔 같은 질병이 새기는 것은 이 육체 때문에 생긴다고 본 점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비판한다. 14. 5.

마니교는 세계를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악한 물질이 있었고, 이 악한 성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스며들어 오염시켰으므로 이 세상에 선과 악의 투쟁이 있게 되었다.

마니교도들은,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지체인 존재, 또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로부터 생겨난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적대 세력과 뒤섞이면서,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복된 상태에서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간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백록 7.2.3』

이를 따르면, 사람이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악의 영향 때문이고, 따라서 그 책임을 자기 밖으로 돌릴 수 있었다(『고백록』 4.3.4.). 마니교는 어찌 보면 악의 기원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이런 신관이 지독한 오해이고 독신이며 가증스러운 주장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에 마니교에 빠져 있던 나는 (네브리디우스의) 그 말을 듣고 크게 동요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니교도들은 저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마니교도들이 만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실체로 타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모든 것들과 모순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이 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실체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듣자마자 그 즉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타락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과 혀로 하나님에 대하여 끔찍한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가르침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에서 달리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고백록』 7.2.3)

기독교의 하나님은 마니교의 신과 아주 달랐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기독교의 신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선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한다(『고백록』 13.28. 43. - 32.47).

그렇다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고, 선한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은 모두 선하다면 그런 선한 세상에 어떻게 해서 악이 발생할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 도대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고백록』 7권 5장 7.)

어거스틴은 자기의 행위가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나의 죄의 원인은 나의 의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들어올려서 주님의 빛을 한 가닥 볼 수 있게 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내게 의지가 있다는 사실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다름아닌 “나”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제야 나는 거기에 나의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백록』 7.3.5.)

이렇게 악의 기원을 의지에서 찾음으로써 어거스틴은 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마니교는 이 면에서 오해하여 선한 하나님과 악한 물질이 본래부터 존재했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던 것이다(『신국론』 11. 22.).

악의 기원으로서의 의지의 부패, 왜곡을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분석된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sup>15)</sup>

천사가 선한 천사나 타락한 천사로 나뉘는 것은 서로 본성이 달라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실체의 선한 창조주요 이 양편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 둘을 가른 것은 양편이 자유의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고 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신국론』 12.1.1.2 ).

선한 천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연기를 뿜는다. 선한 천사나 타락한 천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본성은 같은데, 한쪽의 의지가 달라지고 부패한 것이다. 한쪽은 바른 의지를 가졌고, 다른 한쪽은 비뚤어진 의지를 가졌다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신국론』 11.33).

의지가 창조된 본성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부패한 것이다. 피조물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복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자기를 창조한 분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다(『신국론』 12.1.2.). 그러므로 천사의 의지나 인간의 의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자기 본성에 일치하는 것이요 그럴 때 복에 이를 수 있다. 천사가 하나님과 합일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죽음 없이, 잘못을 범함 없이 누구의 훼방도 받는 일이 없이 큰 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신국론』 12.1.3.). 그런데 천사가 의지의 방향을 바꾸어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다른 것을 향하는 것 그것이 의지의 타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맞서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다(『신국론』 12.3.).

어거스틴은 혹시 의지의 부패 이전에 의지의 부패를 일으킨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의지가 악을 선택한 것은 악한 본성이나 악한 의지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악한 의지의 선행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런 가능성을 부인한다. 의지의 타락에는 그 의지를 타락시키는 그 이상의 원인, 작용인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의지가 악을 선택한 것은 악을 선택한 그 의지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다.

여기서 만약 이 악한 의지의 작용인(作俑人)을 찾는다면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행위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의지 자체인데 따로 의지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악한 행위의 작용

15) 어거스틴은 존재를 설명할 때 플라톤-어거스틴의 문법을 따른다. 개별자들은 본성(형상)과 질료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인은 악한 의지이지만 악한 의지의 작용인은 무대(『신국론』 12. 6.).

또 의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그 의지가 선택한 대상 자체가 악해서도 아니다. 의지가 부패했다는 점은 악한 대상을 선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그 선택을 할 때 그때 선택한 대상보다 더 상위의 존재를 택하지 않고 하위의 존재를 택했다는 데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그 자체 악한 존재는 없다. 그러나 선의 등급에서는 차이가 있다. 의지는 마땅히 상위의 선, 아니 가장 최상의 선을 추구하고 선택해야 한다.<sup>16)</sup> 그런데 의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지 스스로 상위의 선을 버리고 하위의 것들로 전향할 때는 악해진다. 그것은 전향하는 그 대상이 악이기 때문이 아니고 전향 자체가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위의 사물이 의지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가 약해져서 사악하고 무질서하게 하위의 사물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신국론』 12. 6.).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악의 악한 점은 결여라고 규정한다. 주어진 본성상 채워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결여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다.

어느 자연본성도 악한 것이 아니며, 악이라는 명사는 선의 결핍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신국론』 11.22.). 그러므로 아무도 악한 자유의지의 작용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작용인이 존재하지 않고 결함인(缺陷因)이 존재한다. 그것이 작용이 아니고 결함이기 때문이다. 최고로 존재하는 자로부터 그보다 더 못하게 존재하는 사물로 떨어져나가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악한 의지를 갖기 시작한다(『신국론』 12.7.).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악을 한 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연유를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이 자기 의지로 범죄하였을 때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부채와 죽음의 필연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다(『신국론』 14.1.). 그 결과 인류는 죽음에 처해지고 짐승처럼 살며 정욕의 노예가 되고 죽은 다음에는 형벌을 당하며 단죄를 받게 되었다(『신국론』 12.22.). 이로써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성서에 의하면 이들 두 두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는 육에 따라 사는 인간들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영에 따라 사는 인간들의 도성인데, 둘다 그 나름의 평화 속에 살고 싶어하며 기대하던 바를 획득하는 한 그 나름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성이다.”(『신국론』 14.1.).

16) 선한 것 중의 최고의 선, 선 자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존재들은 그것이 제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최고선에 비하면 못한 것이니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따라서 어떤 존재이든 그것을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한다면 올바른 의지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그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면 악한 의지가 된다(『고백록』 4.9.14).

##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플라톤이나 스토아 학파와는 달리 어거스틴은 욕구나 걱정, 또는 감정을 윤리적 악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 대신의 의지가 마땅히 추구해야 보다 높은 선, 최고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것을 추구할 때 죄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감정은 윤리적인 선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특이하게도 어거스틴은 감정을 의지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욕망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동의하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하는 것이 우리가 싫어하는 바에 저항하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동의할 때, 그것이 욕망cupiditas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향유하면서 동의할 때, 그것이 기쁨laetitia이다. 마찬가지로 닳치기 싫어하는 바에 저항할 때 그런 의지가 두려움metus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닳치는 바에 저항할 때 그런 의지가 슬픔tristitia이다(『신국론』 14.6.).

감정을 의지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보인다. 감정과 이성 서로 대척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이성과 감정 둘 사이에서 의지의 위치를 정한다면 의지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근대 이후의 일반적인 이해 아닌가?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감정을 의지와 동일시하는가?

딕슨이 기독교적 감정론자의 목록에 올리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를 해명해 줄 수 있을 듯하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주신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오성(understanding)이라고 불리는 기능으로서 “이 기능에 의해 우리는 (사물을)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 또는 사물들을 구별하고 바라보고 판단한다.” 오성과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의해 우리는 “사물을 단순히 지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바라보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물에게 어떤 식으로든 끌리게(inclined) 되는데, 그 사물에 가까이 끌리기도 하고 아니면 멀어지기도 한다.” 에드워즈는 이 기능을 처음에는 ‘성향(inclination)’이라고 부르지만 “이 기능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고 통제된다는 면에서 ‘의지(will)’”라고 부르기도 한다 (Edwards, 12).

에드워즈는 이어 이 성향, 의지를 감정과 연결한다. 그는 감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영혼의 이끌림과 의지의 발휘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일 뿐 아니라 그 강도의 정도에서도 다양하다. 영혼이 무관심의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움직이는 좋아함이나 싫어함, 이끌림이나 염증의 발휘가 있다. 이것보다 정도가 올라가면 승인이나 혐오, 즐거워함이나 싫어함이 더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영혼이 활기차고 현저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의 행동이 힘 있게 진행되어 (창조주께서 영혼과 신체 사이에 고정시켜 놓은 연합의 법칙에 따라) 혈액과 동물정기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주 어떤 신체 감각, 특히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순환운동의 원천인 심장과 관련된 신체 감각이 일어난다. 이런 이유로 마음은 아마도 모든 나라와 시대 사람들에게 의해 ‘가슴heart’이라고 불린다. 이제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기능의 이와 같이 보다 활기차고 현저한 발휘가 바로 **감정affections**이라고 불리는 것이다.<sup>17)</sup>(강조는 저자)

17) 13쪽. 에드워즈는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지금의 일반적인 ‘passion’을 사용하지 않고 ‘affection’을 사용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요약한다. “영혼의 의지와 영혼의 감정은 두 개의 기능이 아니다. 감정은 의지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의지의 행동이나 영혼의 이끌림과 다르지 않다. 다만 얼마나 활기 차고 현저한가 하는 면에서의 차이뿐이다.”(13)

이끌림, 의지, 감정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것을 좋아함과 나쁜 것을 싫어함이다. 오성이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여 좋고 나쁨을 인지할 때 이끌림이 생긴다. 이 이끌림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거나 멀리하려는 것이 의지이다. 이때 좋고 나쁨의 정도가 그의 삶에서 꽤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때 마음의 동요, 감정이 발생한다. 의지는 마음의 이 현상을 능동적인 움직임의 면에서 파악한 것이고, 감정은 수동적인 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의지와 감정 사이의 이런 차이점보다는 움직임의 강도의 차이로 규정했다. 에드워즈의 이해에서는 감정도 일종의 의지이고 움직임의 강도가 강한 의지가 감정이다. 의지와 감정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런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거스틴이 의지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다.

어거스틴은 다시 이 의지를 사랑과 연결한다.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인간에 따라 하지 않고 하느님에 따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의심할 나위 없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는 선한 의지의 인간이다. 성서에서는 더 일반적으로 애덕caritas이라고 하는데 같은 성서에서도 사랑amor이라고도 한다. (주께서 베드로에게는 diligis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amo라고 답했다(14.7.1).)

그러므로 올바른 의지는 곧 올바른 사랑이며 비뚤어진 의지는 곧 나쁜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바를 갖고자 탐하는 사랑이 탐욕cupiditas이다. 또 사랑하는 바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사랑은 기쁨 laetitia이다. 자기에겐 상반되는 바를 기피하는 사랑은 두려움timor이다. 그것이 자기에겐 닥칠 때 느끼는 사랑이 슬픔tristitia이다. 여하튼 사랑이 나쁘면 이것들이 나쁘고 사랑이 좋으면 이들도 좋다 (14. 7.2.).

사랑과 의지 중 사랑이 좀 더 근원적일 듯하다. 최고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최고선을 향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에게는 사랑 = 의지 = 감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감정은 스토아 학파와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감정은 의지와 사랑의 방향에 따라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다. 감정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감정이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 생성된 감정이냐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성되는 감정은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보다 못한 것을 사랑해서 생성되는 감정은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다. 어거스틴은 성경이 감정들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어거스틴은 아래 구절들이 그 감정이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한다(『신국론』 14.7.2.).

- a.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concupiuit” (빌립보서 1:23)
- b. “너희 의인들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시편 32:11)
- c.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 4:7)
- d.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립보서 2:12).
- e.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20)

a에서 바울은 자기 신상과 관련하여 소원하는 거룩한 욕구를 고백하고 있다. b와 c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 d와 e는 이런 두려움이 신자의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하며 권장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하고 슬픔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본다. 스토아 학파는 슬픔을 좋은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좋은 감정 *eupatheia*로 의지 *voluntas*와 희열 *gaudium*과 신중함 *cautio*은 인정했지만 슬픔은 인정하지 않았다. 슬픔은 자기가 당하는 악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현재에게는 아무런 악도 닦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슬픔을 느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슬픔을 스토아 학파는 좋은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 한 예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로 보낸 고린도후서의 7장 8-11절을 지적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함으로써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다.<sup>18)</sup> 그러므로 거룩한 도성의 시민들은 현세 생활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탐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감정들은 바른 감정이다.

그들의 사랑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올바르게 간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별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탐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신음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기를 기다리며, 자기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실제로 아파한다. 그들은 “그때 성서에 씌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라는 말 때문에 희망을 걸고 즐거워한다. 또한 그들은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참고 견디기를 탐한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선행에 대해 즐거워한다(『신국론』 14.9.1.).

어거스틴은 바울이 바로 그런 바른 감정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었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그가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흡족해했다. 또한 그를 밖으로는 싸움, 안으로는 두려움을 품은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탐하는 사람으로, 로마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간절했고 …… 고린토인들에 대한 열정이 지극하여 바로 그 열정 때문에 누가 그들의 생각을 썩게 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순결을

18) 우리 말 성경에는 “근심”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원어로는 *λύπη*이고 주요 영어 역본은 ‘sorrow’나 ‘grief’로 쓰고 있다. NIV, KJV, ESV.

저버리거나 앓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기 동족인 이인들 때문에 크나큰 슬픔이 있고 자기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 ……아파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신국론』 14.9.2.).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감정에 대해서도 증언한다.

그분의 복음서에 전하기를, 그분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슬퍼했고, “당신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 당신들 때문에 기뻐합니다”라는 말씀을 했으며, 라자로를 부활시킬 때에는 눈물을 흘렸고, 당신 제자들과 함께 해방절 음식을 나누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으며, 수난이 다가오자 그분의 영혼이 근심에 싸여 죽을 지경이었다(『신국론』 14.9.3.).

그리스도의 이 감정은 그의 육체와 정신이 진짜였던 것처럼 진짜 감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인간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그 감정을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표명했다는 것이다. 감정이 올바른 이성을 따르는 한,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발휘된다면 그것은 병고(morbos)라든지 타락한 정염(passiones)이 아니라는 것이다(『신국론』 9.3.).

이제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토아 학파의 무정념은 좋게 보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바라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죄가 전혀 없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도 현세 생활의 허약함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이런 감정을 일체로 지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사도는 그런 사람을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꾸짖는다는 것이다.

### 중보자와 지복의 상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죄로 말미암은 징벌 아래에 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의지와 사랑도 마땅히 추구해야 할 창조주로 향하지 않고 피조물로,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하는 우상숭배,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 의지가 왜곡되었으므로 타락한 사람이 갖게 되는 온갖 감정도 부패하고 사악하게 되었다. 『고백록』 10권 30장 이하에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2장 16-17절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길게 해명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이 왜곡된 감정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성적 정욕, 입, 코, 귀, 눈으로 말미암은 쾌락, 불필요한 호기심, 교만, 칭찬을 추구함, 헛된 자랑, 자기 만족.

어거스틴은 이런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 바른 감정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편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똑같은 것을 지닌 그리스도만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백록』 10.42.67).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은 자기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만일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나는 이미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병은 많고 깊기 때문입니다. 나의 병은 정말 많고 깊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약은 나의 병보다 더 강력합니다.”(『고백록』 10.43.69.)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최종의 상태는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자기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자신도 잘 모른다고 말한다. “사실, 저 활동 또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안식이자 여가가 어떤 것일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곳에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느님

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신국론』 22.29.1.).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부활 후의 의지는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향상된 의지임을 말한다.

거기서는 죄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죄짓는 즐거움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짓지 않는 즐거움,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즐거움을 향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처음에 올바르게 창조되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으나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 그 대신 이 최후의 자유의지는 그보다 훨씬 강화되어 그 자유의지로는 지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는 그분에게서 죄짓지 못하는 능력을 받는다(『신국론』 22.30.3.).

따라서 이 지복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의 의지는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된 의지요 모든 선으로 충만한 의지일 것이다. 지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의 유쾌함을 향유하는 의지요, 죄과를 잊어버리고 죄벌도 잊어버린 의지일 것이다."(22.30.4.) 그러므로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하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영원히 이루어질 일이다(22.30.5.)

#### IV. 감정과 육정의 고뇌

어거스틴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불변하는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대신 유한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온갖 나쁜 감정들, 괴로움, 시기, 의심, 두려움, 분노, 다툼에 휩싸여 별걸게 달구어진 쇠막대기로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지만(『고백록』 3.1.1.)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집어 들고서 읽어라."라는 소리를 따라 로마서 13장 13-14을 읽고(8.12.29.) 어거스틴은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정욕과 욕망의 쇠사슬에서(8.6.13.)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이제 원칙적으로 온갖 나쁜 감정을 벗고 참된 감정을 소유하게 되었고, 선을 도모하는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8.10.22) 중보자에게 호소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로 고뇌하였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슬픔과 눈물의 문제였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얼마 후 로마에 와 있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오스티아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때 밀려오는 슬픔의 감정과 싸운 일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고, 거대한 슬픔이 내 가슴으로 밀려와서 눈물의 강이 되어 눈으로 향했지만, 내 눈은 내 마음의 엄한 명령에 따라, 그 눈물의 강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서, 눈물 샘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이러한 씨름은 내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9.12.29.).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느꼈던 슬픔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긴 더러운 감정이라고 부르며 그런 감정을 씻어내고 자기를 정결케 해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4.6.11.)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이 슬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아 온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던 삶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내가 받게 된 새로운 상처 때문이었다”고, “이제 어머니로 인한 그러한 큰 위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 그런 것이라고 동정적으로 말한다. 어거스틴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그러한 본성적인 감정이 내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몹시 괴로워하였다(9.12.31.). 어거스틴은 이런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말을 따라 살지 않는 영혼조차도 묶어 지배하는 죄사슬”로 작용하는 “사람의 온갖 습관” 중 하나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슬픔 앞에서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경험보다 더 심각하게 어거스틴을 괴롭혔던 문제는 성적 정욕의 문제였다. 어거스틴의 젊었을 때의 생활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삶이 아니었다. 고향을 떠나 카르타고로 갔을 때 16살의 나이였던 그는 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 생활을 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나는 카르타고로 왔는데 거기에는 내 주변에 도처에서 추악한 애욕의 솔단지가 큰 소리를 내며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 나는 애욕을 사랑하고 있었고, …… 애욕의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고백록 3.1.1.]). 이 여인과 그 사이에 아이 하나를 두기도 했지만 31세 되던 해에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헤어졌다. 이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간을 그는 무사히 넘기지 못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 정부인이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이것은 내가 결혼 생활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6.15.25.)

그가 로마서 가서 마니교에서 빠져 나오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마지막으로 그의 발을 잡고 있었던 문제도 이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거스틴은 그 시기 자신이 여전히 여자에게 단단히 묶여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8.1.2). 그 상태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분석한다.

내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죄사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의 죄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내 의지를 장악해서, 나를 묶는 죄사슬을 만들어 냈고, 그 죄사슬로 나를 꼼꼼히 묶어 버렸습니다. “뒤틀린 의지 *voluntare perversa*”로부터 “정욕 *libido*”이 생겨났고, 계속해서 정욕을 좇다 보니, “습성 *consuetudo*”이 만들어졌으며, 습성을 대적하지 않았더니, “필연 *necessitas*”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쇠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죄사슬”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죄사슬”이라고 부른 것인데, 나는 이 죄사슬에 꼼꼼히 묶여서 꼼짝없이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고백록』 8.5.10.).

어거스틴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도조차 불편을 느꼈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나의 꿈속에 나타나서 쾌락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동의를 얻어 내어서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그 심상들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인데도, 나의 영혼과 육신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나를 설득해서, 내가 깨어 있을 때에는 실제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꿈이라는 허구 속에서 행하게 만듭니다(『고백록』 10.30.41.).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 일을 어거스틴은 죄로 여기지는 않았다. “꿈속에서 그런 일을 벌어진 경우에는 씩씩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일을 행한 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결혼하는 것을 죄 짓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결혼은 후손을 얻는 중요한 목적에 기여하며, 그것 외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유익을 인정하였다<sup>19)</sup>. 그러나 성적 관계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자녀를 생산했을 터인데, 그 경우 그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경우 자녀를 만들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기능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유안(Gao Yuan)<sup>20)</sup>은 어거스틴이 겸손의 정도에 따라 결혼생활, 과부, 처녀, 순교자의 서열을 만들었음을 관찰한다. 그러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부터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되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그의 회심의 마지막 길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거스틴은 한편 감정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좋은 감정도 있다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자비의 감정이 없다면 무정한 사람으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지만 감정으로 야기되는 마음의 동요에 대해서는 경계하였다. 천사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비교할 볼 때 인간의 감정은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 감정들이 과연 현세 삶의 약점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따라 벌받을 사람으로 사로잡은 자들에게 벌을 주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곤궁에 대한 공감을 느끼지 않으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보살필 적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간 언어는 관례적으로 천사들에게도 이런 정염을 가리키는 명사들을 부연해서 기술한다. 천사들이 감정의 취약성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감정에서 우러나는 인간 행동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도 노여워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염도 그분을 어지럽게 할 수는 없다 *nec tamen ulla passione turbatur*. 따라서 이런 단어는 하느님이 내린 징벌의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분의 감정의 동요 *turbulentus affectus* 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신국론』 9.5.)

어거스틴의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당시에 만연해 있던 수도사 운동의 영향이다. 그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동경하며 경청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시도해 보기도 한다. 환경이 허락했다면 그도 수도사들의 금욕생활을 따라 했을지 모르겠다.

19) Burke, Cormac, “St. Augustine: a View on Marriage and Sexuality in today's World”, *Angelicum Angelicum* Vol. 89, No. 2 (2012), pp. 377-403 (27 pages) Published by: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ancto Thomas Aquinate in Urbe.

20) Yuan, Gao, *Freedom from Passions in Augustine*, Peter Lang, 2017.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어받은 희랍철학적 사고방식이다. 그는 사물들을 이해할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따랐다. 그래서 사물들은 기본적으로 질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고 형상이 그의 본질을 형성하며 질료는 형상이 온전히 발휘되는 데 방해로 하는 경향을 띤다. 이 어법을 따라 사람을 이해하면 육체는 질료에 해당되고 영혼이 형상에 해당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따라 생각할 때 존재의 서열상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고, 천사가 그 다음이고, 그 아래에, 세상의 다른 사물들보다는 위에 사람이 존재한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하듯이, 사람의 몸은 자기 위에 있는 영혼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욕의 경우, 또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 몸이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남자의 몸이 타락 이전에는 마음의 명령을 따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그 결과 몸이 마음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 욕정을 느낄 때 몸이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죄의 형벌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다.

몸이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거나 또는 죄는 아니라도 징벌로 인한 악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몸이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다 죄나 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몸의 활동들 중 마음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많다. 소화 작용이 그렇고 피의 순환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명령과 상관없이, 또는 마음의 잘못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몸의 이런 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원리를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매우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나 악의 기준을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가의 여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남자의 몸이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락 이후 징벌로 일어난 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육체는 이성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피동은 능동보다 못한 것이라는 희랍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 VI. 마무리 - 이교적 감정론의 극복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정을 언급할 때 그 감정은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느낌, 생리학 적 현상, 표정, 행동의 경향성, 그 상황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요소로 되어 있다. 이 중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자신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의식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반성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감정에 포함시키는 것들 중에는 놀람과 같이 아주 짧은 순간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장기간의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증과 같은 길게 유지되는 감정도 있다. 감정이 이만큼 복잡한 현상인 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덕슨의 주장처럼 그 이면에 있는 당시의 또는 본인의 세계관에 의해 개념에서부터 이론의 내용까지 조성되는 일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어거스틴이 그 이전의 플라톤의 감정론과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을 이어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이전의 감정론을 비판하고 기독교적인 감정론으로 변형시켰는지를 추적하였다.

고대 희랍-로마 철학에서 감정론은 윤리학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일부이거나 (스토아 철학의 경우) 전부였다.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성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선에 도달하고 그 결과 지복에 도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어거스틴은 감정론에 관한 이런 문제 설정을 전수받았다. 그의 기독교적 윤리학에서도 감정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개신교의 중요 요리문답이 기독교 윤리를 다룰 때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한다면, 어거스틴의 윤리학에서는 어떤 감정이 좋은 감정이고 어떤 감정이 나쁜 감정인지를 말한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선 또는 악의 출처를 찾는 면에서는 이전 철학자들과 어거스틴은 완전히 달랐다.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마음의 병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감정은 이성의 판단을 따른 지혜로운 삶에 방해가 되므로 현자는 이런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무정념의 상태에 이르든지, 혹은 몇 개의 제한적인 좋은 감정만 갖는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악을 감정에서 찾지 않았다. 최고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느 것이든 선한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도 악의 기원으로 여길 수 없었다. 어거스틴은 의지의 부패에서 악이 기원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의지가 곧 감정이요, 또 사랑이었다. 그 결과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는 감정은 선한 것이고, 의지와 사랑이 그보다 못한 존재를 추구할 때는 악한 감정이 나왔다.

첫 사람이 타락한 후 모든 인류는 원죄를 물려받아 그의 사랑, 의지는 부패하여 최고의 선을 향하여 발휘되지 못하고 그보다 못한 대상을 향하여,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발휘되었다. 그 결과 사람은 시기, 질투, 투쟁, 슬픔 등 수많은 나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런 나쁜 감정은 죄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악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패한 의지가 치료되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는 이전의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 바른 감정들을 향유할 수 있다. 이때 이생에서의 바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한다.

어거스틴은 슬픔을 비롯한 감정들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다. 감정이 이성의 지배를 벗어나 오히려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죄로 말미암은 징벌로 파악했다. 부활 후의 감정은 천사들의 감정과 같이 이런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았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쾌락을 비롯해서 감정의 동요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이해한 것은 기독교적인 이해라기보다는 희랍의 이원론적 사고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어거스틴과 같이 철저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사고하기 위해 힘쓴 경우에도 당시의 논의 방식을 따라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의 새로운 세계관에 의해 재해석하고 변혁시키려 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다.

## 참고문헌

- Augustine (1984), 박문제 역 (1984), 『고백록』, 크리스천다이제스트., Philip Schaff tr., *The Confessions and Letters of St. Augustine, with a Sketch of his Life and Work*, Pusey tr., *The Confessions of Augustine*. (2004), 성염, 『신국론』 분도출판사., Philip Schaff tr., *St. Augustine'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 김요한 (2015),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성 윤리와 감정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76호, 214-235.
- 오유석 (2017), 아우그스티누스의 감정론, 『지중해지역연구』, 19권 4호 73-100.
- 이창우 (2012), 스토아적 감정 이론 : 추론적 구조, 동의 그리고 책임, 『인간환경미래』, 8. 91-120.
- 정성욱 역 (2005), **신앙감정론**. Edwards, Jonathan (1959),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Religious Affections*. 서울: 부흥과개혁사.
- 최희봉 (2006), 감성과 취미에 관한 흄의 견해. **동서철학연구**, 42, 205-225.
- Burke, Cormac, “St. Augustine: a View on Marriage and Sexuality in today's World”, *Angelicum* Vol. 89, No. 2 (2012), pp. 377-403 (27 pages) Published by: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ancto Thomas Aquinate in Urbe.
- Cicero, Marcus Tullius (2005), *Cicero's Tusculan Disputations*, Produced by Ted Garvin, Hagen von Eitzen and the PG Online DistributedProofreading Team.
- de Sousa, Ronald (2018). Emotion. in Edward N. Zalta (E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8 Edition).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motion/> (2019. 4. 27.)
- Dixon, Thomas (2003), *From Passions to Emotions : The Creation of a Secular Psychological Categ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Jonathan (2018), *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 Kindle Edition.
- Paul E. (2004). Is Emotion a Natural Kind? in Solomon, Robert C. (Ed.) (2004).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C. (1994), *The Therapy of Des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and Oxford.
- Yuan, Gao (2017), *Freedom from Passions in Augustine*, Peter Lang.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감정론	발표자	양성만
		논찬자 (소속)	문영식 (송실대)

양성만 교수님의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감정론”은 희랍철학의 감정론을 수용하여 기독교적 감정론으로 변용시킨 어거스틴의 감정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감정이라는 표제어로 저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감정론은 연구자들에게도 환영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양성만 교수님께서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감정론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신 것은 어거스틴 연구자에게 해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논문은 먼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을 일별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거스틴의 감정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을 살피면서 “감정은 마음의 질병이다”, “감정은 잘못된 가치 판단, 즉 속견에 빠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감정은 무정념의 상태”라는 스토아 감정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86년에 회심하고, 396년에 히포의 주교가 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스토아의 감정론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악의 기원을 다루며 악의 기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이며, 인간의 의지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높은 선, 최고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것을 추구할 때 죄악이 발생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윤리적인 선악이라는 측면에서 의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독교 감정론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감정은 의지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의지의 행동이나 영혼의 이끌림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사랑과 연결시키며 사랑=의지=감정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거스틴의 감정은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바울의 감정론, 그리스도의 감정론을 언급하며 “감정이 올바른 이성을 따르는 한,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발휘된다면 그것은 병괴라든지 타락한 정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른 감정으로 가는 길은 중보자인 그리스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만 교수님의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감정론”을 읽고 어거스틴 감정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은 향후 어거스틴 감정론을 연구하는데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어거스틴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에서 II.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희랍철학에 나타난 감정론의 어떤 부분을 어거스틴이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향후 어거스틴의 감정론을 더 연구하신다면 Johannes Brachtendorf, Sarah Catherine Byers, Marcia Colish, Peter King 등의 입장을 살펴보면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논문의 6페이지를 보면 III.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변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에는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변혁”보다는 “기독교적 변용” 또는 “기독교적 전회”가 더 어울릴 듯합니다. 어거스틴은 『신곡론』 9권과 14권에서 스토아 학파의 감정론에 대해 기독교 교리와 연결하여 재해석하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변혁이라는 용어보다 변용 또는 전회가 어떻지요?

3. 『고백록』과 『신국론』을 중심으로 악의 기원을 논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기원은 어거스틴의 『자유지론』에 담겨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유지론』에서 에피쿠루스 딜레마를 통해 제시되는 악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의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변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지론』에 나타난 의지 개념을 논문에 반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4. 논문 11페이지를 보면 『신국론』14.6을 인용하면서 감정과 의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의지 개념을 본다면 의지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지론』에서 어거스틴은 의지는 자유로운 선택, 지향성, 목적을 향한 영혼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감정과 동일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지는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 또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나 인간을 향한 사랑을 향한 지향성의 의미가 강합니다. 『신국론』 14.6의 해석에서 의지를 감정과 동일시하기 보다는 의지를 감정의 일종으로 보거나 의지와 감정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의지는 감정을 향한 지향성, 영혼의 움직임, 감정의 일종이라면 감정과 동일시라고 전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어거스틴의 감정론이 스토아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사건으로만 감정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심한 이후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의 감정을 향한 성령의 도우심, 인간의 감정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세례 받은(인도받는) 감정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어거스틴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양성만 교수님의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감정론” 연구와 통찰력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